

2022년

대전지역

청년 성평등 동아리
활동 사례집

류유선 · 오윤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센터장	• 류유선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사업담당자	• 오윤희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문연구원
참여 동아리	• BIGWAVE • CGSN • L() • 오토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사업보고서

2022년 대전지역 청년 성평등 동아리 활동 사례집

발행인 정 재 근

발행일 2022년 8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042-530-3550 팩스: 042-530-3559

홈페이지: <http://www.dsi.re.kr>

인 쇄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사례집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2022년 대전지역 청년 성평등 동아리 활동 사례집

류유선·오윤희

본 사례집에서 대전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활동을 통해 성평등이라는 공통의 가치관과 문제의식,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사례들은 대전의 정책입안자들이 눈여겨 볼 성평등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광역시 성평등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고, 과제를 발굴하며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 성평등 대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

둘.

성평등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IDEA
물어보다

- A. '성평등한 OO'을 꼽는다면?
- B. 당신에게 '성평등'이란?

글. 그림. 이야기
(동아리 활동 결과)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가 된다
[BIGWAVE]

여성청년을 다룬 연구저작물 비평
[CGSN]

어린이 장난감·미디어 속 성차별적 요소
조사 및 해결방안 탐구
[L()]

대전 여성장애인 자전공연
[오토]

폴라주(Collage)

MADE
바란다

- A. 대전시에 바라는 점
- B. 앞으로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에 바라는 점

나가며
담당자의 글



개요

성평등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성평등이라는 공통의 가치관과 문제의식, 관심을 공유하는 대전시 청년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동아리를 지원

(2020년 : 대전소재 4개 고등학교의 5개 동아리 참여, 총 36명)

(2021년 : 대전소재 3개 고등학교의 4개 동아리 참여, 총 30명)

- 성인지 감수성을 확산시키고 성평등 세대 공감 실천
- 청년의 시각으로 성인지적 정책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 도출

■ 사업 대상

- 대전시 청년을 구성원으로 한 '성평등' 주제에 관심 있는 동아리

■ 동아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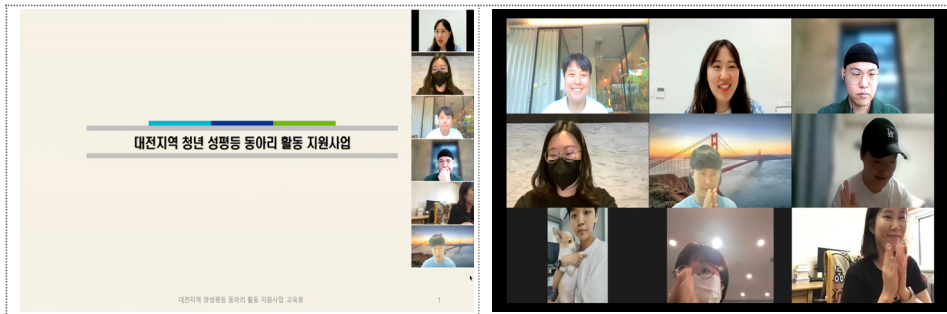
동아리명	구성원
BIGWAVE	대학생
CGSN	대학원생
L()	지역 활동가, 지역 청년
오토	지역 예술인(연극 연출, 배우)

■ 사업 담당자의 역할

- 동아리 구성원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사업 과정

- 오리엔테이션(6.09, 목) : 지원사업 소개 및 주의사항 안내



- 동아리 활동(5월 ~ 8월)

동아리명	세부 일정
BIGWAVE	6.22(수) : 가정에서의 젠더권력을 주제로 토론 7.06(수) : 청소년기의 젠더권력을 주제로 토론 7.13(수) : 대학생활에서의 젠더권력을 주제로 토론 7.20(수) : 일상생활에서의 젠더권력을 주제로 토론 7.27(수) : 우리 사회의 젠더 권력을 주제로 토론
CGSN	5.30(목) : 여성청년을 다룬 논문 비평 - 고학력, 비혼, 1인가구 7.12(화) : 여성청년을 다룬 논문 비평 - 기회의 공정성, 지역과 젠더 7.26(화) : 여성청년을 다룬 논문 비평 - 청년정책과 담론 8.09(화) : 활동 마무리 토론

4 하나. 청년 성평등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소개와 활동 결과

동아리명	세부 일정
L ()	5.19(목) : 아동성평등 관련 영화 또는 도서 관련 토론 6.16(목) : 아동 성평등 관련 마트 탐방(참여관찰) 7.14(목) : 웹툰, 아동용 애니메이션 속 성차별적 요소 찾아보기 7.28(목) : 이전 활동을 바탕으로 성평등·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 해결 방안 토론 8.11(목) : 활동 내용 정리 및 사례집 원고 작성
오토	5.30(목) : 여성 장애인 자전 공연 첫 만남 6.15(수) : 여성 장애인 자전 공연 연습 - 유년기 둘러보기 6.20(월) : 여성 장애인 자전 공연 연습 - 삶의 풍경 그리기 6.30(목) : 여성 장애인 자전 공연 연습 - 남은 인생 채우기 8.04(목) : 여성 장애인 자전 공연 연습 - 스텝들과 첫 리딩

■ 사업 절차



글. 그림. 이야기

BIGWAVE

2017년 단독방 성희롱,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남학우의 외모평가, 교직원의 성희롱...
여학우는 학업의 현장이자 일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여성혐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충남대학교 여학우들이 모여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BIGWAVE'를 만들었다.

조수은, 장수현, 최지수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가 된다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인 BIGWAVE의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여성과 젠더 권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들을 나누었다. 유년기를 시작으로 청소년기, 대학생, 일상, 그리고 미래의 사회를 되짚고 그려보며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본 사례집에 신게 되었다. 저마다 다른 환경과 경험 속에서도 결국 여성의 전반적인 삶에서 젠더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성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만 한다.

조수은

BIGWAVE의 5기 회장이자 나의 변화를 시작으로 주변에서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 고자 하는 사람. 아직은 어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수현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즐거운, 그렇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지수

인생 목표는 재밌게 살기! 그러기 위해 이것저것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계기와 목표

그리고 활동의 기록



BIGWAVE는 우리가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여성주의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동아리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사업에 함께 하게 되었다.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BIGWAVE는 학내외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혐오, 성차별을 타파하고 성평등한 대학 분위기를 만들어 차기 여성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라는 명칭에 맞게 실천적이고, 현실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내 여성혐오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페미니스트 학우들이 BIGWAVE라는 공간을 통해 위로와 편안함,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길 목표로 한다. 최소한 서로(페미니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넓은 학교에서 나만 페미니스트인 것이 아니다, 오프라인에 의견을 주고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대학 내 여성혐오를 공론화하고 함께 문제 제기할 공론장을 마련한다.

우리는 총 다섯 번의 만남을 거쳐 개인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젠더 권력'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유년기 시절을 시작으로 청소년기, 대학생, 일상, 그리고 미래 사회의 과정을 돌아보며 비슷하거나 상반된 경험들을 통해 개인의 삶이 더라도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젠더 권력과 함께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공통된 결론을 함께 나눴다. 따라서 우리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험을 포함한 수필 형식의 글을 준비했다. 본 활동을 진행하며 여러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활동을 할 기회가 흔치 않았기에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엄마는 왜 절을 안 하는 거야?

어릴 적의 나는 항상 질문이 많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그 자리에서 궁금증이 해소되어야만 만족했던 내가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절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아빠가 장남이었기에 명절이나 날이 되면 꼭 제사를 지냈다. 우리 가족과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네 가족들이 모여 제사상을 차리고 시간이 되면 그 앞에서 절을 올렸다. 아빠와 삼촌, 할아버지, 그리고 남자 사촌 형제가 먼저 절을 하면 그 뒤로는 나와 언니, 그리고 고모가 뒤늦게 절을 올렸다. 하지만 할머니와 엄마는 항상 뒤에 서 있을 뿐 절을 올리는 모습은 한번도 보지 않았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엄마에게 물음을 던졌고, 돌아오는 대답은 “원래 그런 거야.” 였다.

원래 그런 것.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항상 궁금한 게 많았다. 또래 남자아이들은 왜 치마를 입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면서 크고, 항상 시끄럽게 노는지. 그리고 왜 여자아이들은 매번 암전해야 하고,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되고, 치마를 입어야 하는지. 항상 키가 크고 걸걸했던 성격의 나는 남자아이들에게 일명 ‘조폭 마누라’라고 불리었지만, 왜 ‘조폭’이 아닌 ‘조폭 마누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신체적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없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나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언제나 무언가 다른 취급을 받고 있었다. 원래 그런 것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길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인 내가 좋았다

그럼에도 나는 여자인 내가 좋았다. 내 주위에 있던 남자아이들은 항상 시끄럽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남자인 친구들보다 여자인 친구들이 좋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여자인 게 좋았다. 중학교를 배정받기 전 믿는 종교 하나 없지만, 손을

꼭 모은 채 여자 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빌기도 했다. 그렇게 여자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까지 여자 고등학교에 가게 된 내 청소년기에서 남성이라는 존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그런 공간에서조차 나는 남성과 함께였다. 남자처럼 머리가 짧다느니, 하루는 교복 치마가 불편해 바지를 사고 싶다는 말에 남자가 되고 싶냐는 물음을 받기도 했다. 또래 친구들과 달리 꾸미는 걸 싫어하고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 대신 게임을 좋아하고 키가 크고 머리가 짧았던 나는 어느새 '남자 같은 여자'가 되어 있었다. 가정 시간에는 나의 생애 주기를 계획하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하면서 살겠다는 나의 다짐은 이상한 것이 되었다.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위해 내조하는 삶이 싫었다. 물론 그러한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하는 주위 환경이 싫었다.

드라마와 영화 속 여성들은 왜 남성을 만나야만 행복해지는 것일까? 여성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한다는 인식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그 시절의 내가 보는 여성의 정체성은 그런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여자인 내가 좋았다. 비록 나에게 요구되는 여성성에 반감을 갖고 거부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좋았다. 그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현재의 페미니스트인 나를 만들 수 있었다. 여성인 나를 위해, 여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변화하기로 다짐했다.

2015년, 중학생이었던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고자 한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가 되듯이

물론 처음부터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깍해야 관련 서적을 읽고 인터넷을 들여다보는 게 다였던 내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였다. 학과 선배이자 동아리 회장이었던 선배의 소개로 가입하게 된 동아리 BIGWAVE가 나를 이끌었다. 정확히는 1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이었다.

사회과학 계열의 학과를 진학하는 만큼 무언가 다를 것이라 여겼던 과거가 부끄러울 정도로 주위에서 보거나 듣기만 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과대는 남자, 부과대는 여자인 것부터 시작해 술자리에서 남학우들이 ‘국산 야동’이 좋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등 그 외에도 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무언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스스로의 욕망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렇게 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빅웨이브였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가 된다는 슬로건과 맞게 평범한 여학우들이 하나둘씩 모여 시위에 참여하거나 양성평등 주간의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 등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경험했다. 물론 한국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예를 들어 강연이나 축제 부스, 동아리 홍보와 같이 공개적인 활동을 할 일이 생기면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계란 던지러 가자’, ‘명단 공개해 주세요’, ‘쿵광’, ‘뱃살의 물결을 동아리의 이름으로 표현한 건가요? 이름 정말 멋있네요’, ‘82톤 김지영의 모임이라고 이름 바꿔라 ㅋㅋㅋ’ 등의 반응이 함께였다. 이러한 관심들 속에서 빅웨이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뿌듯한 일이었다. 이전에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무서운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된 것도 모두 빅웨이브 덕분에 된 것처럼 이제 막 성인이 된 내게 동아리는 나라의 사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안타깝게도 약 5년 동안 정식 동아리가 되기 위한 심사에서 꾸준히 떨어지고 있지만, 대학 내에 이러한 동아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지 않은 여학우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록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너 자신은 변했다는 말처럼, 변화한 개인들이 모여 끝에는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남기

한국에서 짧은 머리를 하고 지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의아한 시선을 받거나 길을 가다가도 한 번은 꼭 노골적인 시선을 받기도 한다. 가끔은 내게 직접 성별을 묻는 사람들도 있다. 그 외에도

‘정상적인 여성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러한 시선과 취급이 단순히 머리가 짧고, 키가 크고, 꾸미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면 요즘은 이런 모습이 ‘페미니스트’의 이미지에 가까워 쳐다보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하루는 동아리원들과(동아리원의 머리가 대부분 짧다.) 술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시비를 거는 무리나 다 들리는 목소리로 ‘메갈 모임’이라고 칭하는 이들도 존재했다. 단순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양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렇듯이 적어도 내가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고충을 경험했다. 꼭 나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주위를 살폈을 때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일자리가 끊기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텔레비전을 틀거나, 영화관에 가고, 책을 읽더라도 성차별적인 텍스트가 반복된다.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대한민국에서 계속 페미니스트로 살기 위해서는 번아웃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주변에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역시 성평등한 세상을 바란다는 것은 꽤 지치는 일이기도 하다. 하나 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작 이십 년을 조금 넘긴 나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참 많은 불평등이 존재했다. 내가 겪었던 불편들을 나의 후세대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는 오늘도 외친다. 페미니즘은 파이를 빼앗는 싸움이나 여성우월주의, 남성차별주의가 아니다. 그냥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당연하고도 필요한 절대 불변의 진리와의 같은 것이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근시안적인 태도를 갖추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란 어려울 게 분명하다.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 불평등은 바로 젠더 불평등 문제가 아닐까? 단순히 성별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자고로 갈등이란 의지를 지닌 동등한 두 성격의 대립 현상이며 현재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은 갈등이 아닌 차별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한다.

아픈 손가락은 따로 있다

우리 집은 언니, 나 그리고 남동생 세 남매다. 집안의 둘째로서 난 어릴 때부터 불만이 참 많았다. 동생이 누나에게 못되게 굴 때마다 화를 내면, 엄마에게 동생 기죽이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 본인이 먹은 뒷정리도 제대로 안 하는 동생을 혼내기보다는 포기하고 엄마가 정리하거나, 나에게 시키는 일이 많았다. 항상 부모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아들인데도, 부모님의 애정 1순위는 막내아들이었다. 막내아들이 좋아하는 건 따로 말하지 않아도 항상 챙기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쫓아가서 말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같이 쇼핑 하러 가면 엄마 옷이나 같이 쇼핑하러 온 나의 것보다는, 뭐가 그리 불쌍해 보이는지 요구하지 않아도 동생을 위해 비싼 옷을 퍽퍽 사준다. 나는 어버이날을 이전보다 적게 챙겨줬다고 혼이 났지만, 평생 부모님께 뭘 가져다 바친 적이 없는 동생은 어디서 받은 건지도 모르는 방향제를 엄마에게 주고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엄마는 그 선물이 상당히 감동적이었는지, 나에게 동생의 마음이 참 예쁘지 않냐며 자랑하셨다.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물건이 방향제인데도 말이다. 그 자랑을 들을 때 내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엄마의 눈에 들려고 아등바등 노력해도 항상 엄마의 눈과 마음은 막내아들에게 향해 있다.

여고에서의 기억

다른 학교들에 비해 치마가 길어 ‘호박 마차’라는 별명을 갖는 우리 학교는 차림새에 상당히 보수적인 규칙을 갖고 있었다. 꾸미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차림의 학교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말도 안 되는 규정의 존재를 알았다. 바로 하복 와이셔츠 안에 검정 이너를 입지 못하는 규칙이었다. 그 규칙이 있는 이유는 남자 선생님들이 보기에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몸에 딱 맞는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불편한데, 남자 선생님들 시선의 편안함과 기분을 위해 학생

들의 속옷을 규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검은 브래지어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다행히 이런 규칙은 학생들의 반발과, 새로운 생활복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내가 다니던 곳은 사립 학교였는데 내가 학교에 다닐 당사가 가장 선생님의 연령대가 가장 높았고, 이제 막 젊은 선생님들이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있던 시기였다. 전체적인 연령대가 높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선생님이 대부분이어서인지, 학교생활 중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선생님의 발언이 많았다. 그중 기억나는 것은 장래 희망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다. 가만히 발표를 듣던 남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는 꿈이 현모양처인 사람이 아무도 없니?”였다. 황당한 질문을 시작으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생님은 현모양처에 대한 생각을 늘어놓으셨다. 그런 선생님의 말씀에 뒤늦게 발표 내용에 ‘현모양처’를 추가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입시로 치열한 경쟁 중인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정말 그런 것뿐이었는지 무척 궁금하고 속상했지만, 우리는 그런 선생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함께하는 용기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 대학가도 지금처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창 여성 혐오에 대해 알기 시작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대학 생활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대학에 가서 페미니스트라고 까이면 어떡하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었다. 막상 대학을 와보니 그런 걱정은 사실이기도, 과장된 부분도 있었다.

대학생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페미니즘에 대해 욕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에브리타임이 대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고,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

적인 분위기가 주류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대학 분위기 속에서는 고등학교 때 처럼 친구들과끼리 대놓고 사회 문제를 말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게 됐다. 혹시라도 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들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됐다. 새로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선 말을 아끼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가 되었다. 답답하던 차에 만나게 된 것이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동아리 BIGWAVE였다. 동아리 안에서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점을 가감 없이 숨기지 않아도 돼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 대학 생활에서의 불안감이 없어졌다. 대학 생활에서 나만 이 사회에 동떨어져 있다는 기분이 든 적이 많았는데,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아직은 두려운 점이 많지만 함께하는 여성들이 있기에 용기를 내게 된다.

미래의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어릴 적 어른들로부터 여자에게 최고의 직업은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돈을 벌면서도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주어지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게 여자에게 최선인지, 학창 시절부터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결국 가정이 우선시 되며 돈을 벌어드는 여성이 되기 위한 것인지 고민해왔다. 이런 내 고민은 다분야에서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해답을 찾았다. 자기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멋진 여성들을 보면서, 나도 성공한 커리어를 갖는 여성을 꿈꾸게 되었다. 주위의 여성들을 보며 어른들이 말하는 그저 가정에만 충실한 여성이 아닌, 자신을 위한 더 큰 목표를 바라보게 되었다. 아직 세상에는 여성의 성공을 좌절시키는 것들이 많지만, 내가 주위 여성들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열심히 달려온 여성들이 나를 보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에서 단단히 자리 잡은 멋진 여성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평범한 가정

친가에선 가장 어린 자식의 첫 자식이었고 외가에선 첫 손주였다. 친가는 아버지가 장남도 아니고 내가 태어났을 땐 이미 장손을 포함한 많은 손주가 태어난 후였기 때문에 여자애란 이유로 혼나본 기억은 없다. 외가는 내가 첫 손주여서 다른 사촌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러니 나는 그다지 모난 구석이 별로 없는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그럼에도 점차 나이를 먹자 뭔가 아니라는 생각은 있었다. 아버지는 안방이나 거실, 나와 동생들은 같이 혹은 혼자 쓰는 방이 있는데 엄마는 없을까? 나랑 남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왜 재는 집안일을 시키지 않을까? 왜?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순수한 의문과 불공평에 대한 불만 그 어딘가에 있었던 그 질문들은 멍치고 멍쳐 가슴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여자애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공립에 합반인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공립 공학이지만 남자와 여자를 분반으로 갈라둔 학교였다.

당시 학교는 온통 남자애들의 말썹으로 소란스러웠다. 저녁 늦게 학교를 몰래 침입하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여자 선생님을 괴롭히기도 하고 ‘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조별 과제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남자애들은 또래 여자애들보다 정신이 늦게 발달한다는 말이 진짜인가 깜빡 속을 정도로 유독 남자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았다.

중학교 때는 이런 남자애들을 꼭 여자애들과 붙여놓았다. 담임선생님은 모범생인 여자애들 한둘을 교무실에 불러서 그 남자애들이 말썹을 피우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선생님도 할 수 없는 일을 또래 여자애들에게 전가했던 거다.

고등학교 때는 분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었지만, 말도 안 되는 편견이 있었다.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 이 편견 때문에 주변에 수학 좀 하는 여자애들은 ‘여자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건 다 못해도 수학 하나만 좀 하는 남자애들은 ‘역시’ 소리를 들었다.

꼭 그렇게 성차별적인 말을 하는 선생님은 남녀를 불문하고 많았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직접적으로 하는 남자 선생님도 있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곳이지만, 여자애들에게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어른들은 여자애들이 모이면 좋아하는 남자애, 연예인, 화장품 얘기를 할 거라 생각한다. 아무것도 몰랐던 거다.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내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더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오빠는, 언니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질문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풀어놓을 수 있었다. 나는 그때서야 우리 집이 평화로운 축이었음을 알았다. 학교 선생님보다 심하게 말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도 있었다.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전히 이상한 곳, 이상한 것

대학교는 뭔가 다를 줄 알았다. 다들 성인이니까, 고등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이니까 좀 더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대학교도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다니는 곳이었다. 여전히 이상한 것들이 많았다.

여성이 많다는 학과도, 반대로 남성이 많은 학과도 학과장(과대표)은 대부분 남자가 했다.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나중에 학과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우리 학과 학과장이었던 여자 선배는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관행이 그렇다는 거다. 보통은 군대를 다녀온 2학년 남자 선배가 학과장을 하고, 우리 학과에서 여자 학과장이 나온 것도 4년 만이었다고 말이다.

여성주의 동아리 빅웨이브에 들어간 건, 1학년 2학기였다. 고등학교와 달리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 고립됐다고 느꼈고, 어디 사는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함께 하고 싶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행복한 일 다음에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 불행한 일 다음에는 행복한 일이 생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엔 그랬다. 사람 인생도 세상 돌아가는 모양도 그렇다.

물론 인생이나 세상 돌아가는 모양은 공식이 아니라, 완벽하게 제로는 아니다.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 전의 행복했던 기억이나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살아생전의 흔적이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제도나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다. 특히 백 년이 넘도록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던 가부장제는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다.

막내인 여동생이 올해 열여섯 살이다. 그 애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내가 살며 겪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쾌감과 공포를 전부 없애고 싶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에 제로가 오는 것처럼, 성차별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말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누구든 어디서든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활동 자체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으나, 주로 카페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모임이니만큼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 본인과 조원들의 불안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렇기에 이후에는 다양한 공간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한다.

조수은

우리 동아리는 주제를 사람의 일대기 식으로 정해서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다. 겪어왔던 일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활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 활동 중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은 주제를 놓치기도 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다음에도 성평등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 분야에 대해 깊이 나눌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뒤 토론 활동을 하고 싶다.

장수현

젠더권력은 수식이 아니기에 개인의 삶만 가지고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 초반에는 논문을 가져오기도 하고, 다양한 자료를 읽어온 뒤 활동에 임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논문에 담을 만큼 알지 않다.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연구임에도 내가 겪은 것이 아니니 깊게 와닿지 않았고, 토의 활동 내에서 깊게 다룰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개인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 자신, 엄마, 친구 등등... 스스로 겪었던 일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토의를 진행했다. 자료조사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내 주변의 경험과 비슷한 사례, 연구 결과를 찾아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지수

활동 과정을 통한 성장과 노력

총 5회에 걸친 모임을 통해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속에서 젠더 권력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심층적인 탐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 나만의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찾아보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러한 젠더 불평등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조수은

동아리 토론 활동에서 좋았던 것은 일상 속의 성차별 사례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겪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차별에 관한 사례나 문제점에 대해 새로이 알 수 있었던 점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머릿속에 쌓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담고 있던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성차별에 관한 내 생각과 태도를 성장시킬 수 있어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이 만족스러웠다.

장수현

나이가 들수록 말에 무게가 실린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기에 성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꺼낼 수 없는 주제다. 터놓고 지내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는 진지하게 내 생각을 나누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이 활동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생각만 하고 입에 담은 적 없는 주제를 거침없이 다뤘다. 팀원들과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방안까지 모색했다. 활동을 통해 생각을 구체화하는 힘을 길렀고, 생각을 정돈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최지수

글. 그림. 이야기

CGSN

CGSN은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와 지역사회디자인학과 대학원생들의 모임입니다.

CGSN은 사회학을 전공하는 충남대학교 대학원생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연구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D.C., LED, LongTimeH

‘여성청년’을 다룬 연구저작물 비평

CGSN은 성평등 동아리 활동을 위해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청년’을 분석하는 3개의 논문을 선정했다. 각 회차에서는 1개씩의 논문을 읽고 논문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은 동아리 참여자들이 해당 주치의 논문에 대해 비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했으며, 본 글은 각 주차별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D.C.

CGSN을 통해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청년과 계층에 관심많은 대학원생

LED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다. 젠더와 돌봄에 관심이 많으며, 지금은 청년의 가족돌봄을 연구하려고 인터뷰를 다니고 있다

LongTimeH

충남대 지역사회디자인학과 석사과정 1학년으로 올해 입학했으며,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이 있고 청년들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 사람

사업 참여 계기와 목표

그리고 활동의 기록

성평등 동아리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충남대학교 사회학자 대학원생 네트워크 CGSN으로서 할 수 있는 적합한 대외활동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원생들이 CGSN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네트워킹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했다. 청년 성평등 동아리 활동은 사회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CGSN플랫폼을 적절히 사용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활동으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다. 청년과 젠더라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였다. 세 논문을 읽고 대화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도 알지 못했다.

성평등 동아리는 <표 1>에 제시한 3개의 논문을 읽고 각각의 논문을 대상으로 약 30분~1시간 정도 토론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토론의 주제는 논문에서 시작했지만, 곧잘 지역, 청년, 젠더,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갈래로 뻗어나갔다. 우리는 토론을 내용을 텍스트로 가공하지 않고 대화형식 그대로 본문에 신기로 했다. 다음 글은 우리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표 1> 토론한 논문 목록

저자	연도	논문제목
김민지	2021	청년세대 고학력 비혼 1인가구 여성의 거주 공간의 경험을 통해 본 가족, 성 이데올로기의 저항과 수용, 변형
이희정, 박선웅	2021	청년층의 기회 공정성 인식 분절화 : 지역과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김수아	2021	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 젠더 관점의 고찰

활동 결과

청년 1인가구 여성과 가족, 성 이데올로기

김민지. 2021. 청년세대 고학력 비혼 1인가구 여성의 거주 공간의 경험을 통해 본 가족, 성 이데올로기의 저항과 수용, 변형.

문화와 사회. 제29권 3호. p.117-172.

1. 논문 선정 이유

LED: 제 관심사가 가족, 젠더니까 청년 여성에 관련된 논문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청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청년이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여성은 배제되었다’ 그런 류의 논문이 많았지, 실질적으로 가족에 관련된 논문은 그다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가족, 성 이데올로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재밌겠다고 기대했는데, 가족이랑 관련이 크기보다는 거주 공간에 있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가족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성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논문이었더라고요.

2. 논문비평

D.C.: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이게 꼭 젠더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났는지는 제가 부분 부분마다 좀 궁금했던 게 있었고, (종략) 또 계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학력이고 일종의 성공한 케이스예요. 여성 1인가구 중에서 많이 배우고 취업해서 혼자 경제력도 있고 나름 성공한 사례들인데 또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이상적이지도 않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읽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LongTimeH: 저도 남성이다 보니까 D.C.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 공감되는 내용들도 많았고,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 청년 1인가구로서 살아가는 데에서 겪는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지금까지는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논문에서는 문제를 집중 조명해서 챕터마다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중에서 하나 느꼈던 게, 안전에 있어서 청년 1인가구가 하고 있는 전략에 대한 한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구조적 위험을 개인화함으로써 여성을 약한 존재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순응하면서도 독립성과 자유를 지키는 방안 자체는 능동적인 방향성인데 조심하기는 수동적이란 말이죠. (중략) 그리고 이렇게 모순되는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이 절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기 위해 투쟁적인 의지도 보이면서도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LED: 저도 이 논문이 관통하는 게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본인의 개인성을 자율화 시키기 위해서 집을 나왔지만 실제로 외로움이라든가 고립감을 느끼고, 또 반면에 가족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가족과 잘 지내고 연락도 잘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는 계속 교류를 하지만 반면에 이웃과는 굉장히 단절하는 그런 것들? 결론적으로 저는 좋았던 포인트가 단순하게 '지금 현재 1인가구 여성들이 거주공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노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대안적 가족이라든가 룸 셰어라든가. 두 번째는 제가 이 논문 찾았을 때도 이런 연구가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별성이 있지 않나 했고, 세 번째는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질방(질적연구 방법)의 기술력인 것 같아요. 가족과의 원만한 소통 그다음에 가족과의 단절 구분했을 때 이거를 묶어서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재규정한다, 그런 식으로 기술하는 게 저는 앞으로 제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3. 토론거리

이웃과의 교류와 여성의 안전

D.C.: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옆집 사람들 아랫집, 윗집 이런 이웃들을 되게 경계하잖아요. 다른 논문에서도 읽었는데 사람들이 이웃들을 언제부터 이렇게 경계하게 됐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중략) 그런 문화가 만연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로 주민들이 다 알고 인사하는데 원룸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문화 때문에 1인가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구조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LED: 아무래도 주변과의 단절이라고 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사람들이 혼자 산다고 해서 완전히 누구를 안 만나고 그런 건 아니고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직장 같은 곳에서 관계를 맺는 거지 원룸촌의 이웃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거든요. 왜냐면 나의 거주지가 노출되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때문에 여성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고...

독립에 대한 젠더차이?

D.C.: 이 논문에 나온 고학력 여성 1인가구가 원가족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살고, 이웃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은 남자인 저도 똑같거든요. (중략) 이게 젠더 맥락에서 그렇다고 해버리면 사실 남성 1인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LongTimeH: 저는 집과 안전이 여성들에게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느꼈었고, 주거의 의미나 독립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부모님이

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도 소위 말하는 ‘독립마렵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굳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이기보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기존에 있던 정상 가정의 범주에서 탈피하고 싶은 것들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있는데, (중략)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가 부모님과 동거하게 되는 이유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남자도 겪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을까. 근데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남성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싶은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신(新)전통주의적 가족제도’와 젠더, 계층

LED: 이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전통주의적 가족제도’? (중략) 전통은 여성은 집안일 하고 남성은 밖에서 일하라 하는 건데, 신전통주의적 가족제도는 남자 여자 둘 다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신전통주의적 가족제도라고 해도 사실상 여자가 더 힘들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하려고 하는 비혼여성들의 인터뷰가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 또래가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잘 짚어낸 것 같아요. (중략) 사실상 연구참여자들도 가부장적인 게 싫어서 집을 나왔지만, 본인들이 보는 렌즈는 여전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힌 거죠.

D.C.: 저도 1인가구 연구를 하고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어떻게 살래?’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사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전통주의적 가족주의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내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LED: 근데 임신 출산 육아는 대부분 여자가 하잖아요. 임신 누가 대신 해줄 거예요? 그런 생물학적인 포인트의 걱정이 다 포함되니까 여성들이 불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세대의 독립

LED: 집 구하는 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젠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세대적인 차이도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세대, 청년이라는 것이 어떠한 지위를 나타내고 있나 고민을 해보는 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D.C.: 어느 세미나 가서 ‘선호 미래’와 ‘가능 미래’라는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선호 미래’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가장 이상적인 미래예요. 예를 들어서 중산층, 남성 여성 다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양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은행 대출 받아서 30평대 아파트 사고 애도 있고 이런 거는 약간 ‘선호 미래’인 거죠. 부모 세대에서는 다들 가진게 별로 없기 때문에 원룸에서 단칸방 신혼부부의 생활로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게 너무 일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시작부터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넉넉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만약에 애가 태어나면 애한테 되게 많은 걸 해줘야 되고 이거 자체가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호 미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게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거보다 더 여유가 있어야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 세대들은 사실 그렇게 경제적인 고리가 엮여 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LED: 그거는 간단한 것 같은데 부모 세대는 단칸방부터 시작해도 노력하면 아파트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저희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단칸방에 단칸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생애주기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집이라는 속성이 끼여든 거죠. 취업해야 경제적 안정을 얻고 경제적 안정이 되어야 집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싶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생각이 든 게 확실히 집이라는 속성이 진짜 중산층주의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생애주기 모델의 부재

LongTimeH: 여성이 독립해서 1인가구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행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캥거루족으로 사냐”라는 게 있고 독립해서 살면 문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전 조심해야 되니까 혼자 산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고 가능한 미래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가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딱 보고 있는 거죠. (중략) 더 다양하고 가능성 있는 미래가 많이 그려져야 되고 그러려면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진 후에도 가능한가? 약간 한계인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LED: 확실히 좋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약간 비판 아닌 비판을 받는 것 같고, 결론은 늘 제가 얘기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사실 그거(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싫어서 피한 여성들조차도 그 렌즈는 여전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양한 가족, 다양한 거주형태에 대한 인정

D.C.: 저는 대안적 가족이랑 셰어하우스가 결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그건 되게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대안적 친밀성이라는 게 꼭 정상가족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동거를 한다던지, 그냥 가족 결혼만 안한 가족이면 인정할 수 있는데, 친구랑 같이 사는 거는 사례에서 나왔듯이 일시적인 거예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중략) 저조차도 가족이 아닌 타인과 같이 사는 건 되게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셰어하우스 늘려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것처럼 결론을 짓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LED: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의 형태와 주거의 형태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된다, 물론 같이 산다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중략) 가족 형태에서 얘기를 할 때는 주거 형태와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구분을 딱 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4. 마무리

해당 논문 선정 사유는 첫째,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거주 공간을 분석한 연구이며, 둘째,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성, 가족 이데올로기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잘 풀어낸 연구이기 때문이다. 청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담론의 몰젠더성을 비판하는 논문이 주류였다. 그러나,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김민지(2021)는 고학력, 비혼, 1인가구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1인 가구를 선택한 경로와 가족, 인간관계, 치안과 안전, 사회적 인식 등을 분석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비혼여성의 노후까지를 고려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해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기술력과 구성이 뛰어났다.

한편, 동아리 구성원 내에서도 1인가구 청년과 비독립 청년이 있어, 당사자성의 관점에서 해당 논문 주제를 확장시키는 토론주제들도 있었다. 첫째, 1인가구인 독립청년과 가족과 동거하는 비독립 청년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청년의 거주형태를 바라보는 사회에 대해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청년의 거주형태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거주형태와 가족 형태에 대한 엄밀한 구분 작업이 필요하다. 해당 논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1인가구의 돌봄문제 해결방안을 마치 ‘룸세어’로 단일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거주를 희망하는 1인가구, 가족의 형태로 거주를 희망하는 1인가구 등 이들의 다양한 욕구와 거주 및 가족형태에 대한 충분한 구분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학력의 청년 여성들로 연구참여자 조건을 구성했기 때문에 계층과 관련한 논의가 제한적이었다. 나아가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하는 ‘집’이라는 속성이 계층과 세대의 맥락에서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역, 청년, 젠더가 교차하는 기회 공정성 인식

이희정, 박선웅. 2021. 청년층의 기회 공정성 인식 분절화: 지역과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44권 3호. p.71-99.

1. 논문 선정이유

D.C.: 제가 이 논문 선택한 이유는 우선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공정성, 공정한 게 대체 뭐냐? 이런 논의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이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한 논문이었고, 또 지역과 젠더라는 두 가지 교차점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좀 더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지역청년, 지역여성청년이라는 주제랑 잘 맞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2. 논문 비평

D.C.: 재밌었던 부분은 비수도권 청년 남성이 왜 교육기회 공정성과 취업기회 공정성 둘 다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요. 이 논문에서는 그냥 차이가 있더라.. 였고 사실 왜에 대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인지 도 궁금했고, 현실을 보면 교육기회랑 취업기회 모두 가장 약한 거는 아마도 지역에 사는 여성청년일 텐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인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했고.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지역 남성청년들은 사회가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 여성청년은 사회가 문제다라고 약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보여서 재밌는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추후에 어떤 연구를 해보면 재밌을지도 생각이 몇 개 났었고 그렇게 봤습니다.

LED: 저는 일단 이 논문 보면서 양방논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텍스트 스타일이 중요한거 같은데 사실 이 논문 보면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중략) 아마 연구자도 조금 당황한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집분

석을 했다가 유형분석을 했다가 그런 걸 보면서 분석을 해나가는 방향이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은 어떠한 존재다라고 정의되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이 논문이 지적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늘 청년정책을 하나로 통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방증이 되는 논문이 아닌가 합니다. 청년을 담은 하나에 가두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아했던 부분은 여성청년들이 왜 교육을 공정하게 생각하고 수도권 청년들이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주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LongTimeH: 저는 논문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고 연구를 많이 해보진 않다보니까 양적 연구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신선했어요. 지역이랑 젠더를 나눠서 볼 수 있어서 청년이 이렇게 분절화되고 다양성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기 좋은,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면서도 질적연구가 나와서 왜 이렇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으면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텐데 그 부분이 후속 연구에 있으면 좋겠죠.

3. 토론거리

높은 계층의 청년이 많은 자료

D.C.: 한 가지 의문제기를 해보자면 자료가 좀 치우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 자료 보시면 표본 중에 결혼한 사람이 40%거든요? 20~30대는 기혼비율이 이정도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비수도권 거주자가 65%인데 되게 많거든요? 원래 이렇게 까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주관적계층인식 변수를 보면 하층이 한 10% 정도고 상층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층이 더 많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보통은 하층이 훨씬 많거든요. 청년층에서 중간층도 너무 많이 나왔고. 뭔가 표본이 좀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럼에도 뒤에 회귀분석, 다항로지분분석 같은거에는 모

든 변수들이 통제가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자료 질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LED: 조국 사태가 2019년인데 그런 사회적인 사건들이 주관적계층인식에 이전과 다른 변동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D.C.샘이 지적한 것처럼 뭔가 기초자료 해석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연구 디펜스를 할 수 있게끔 기혼자가 많았는데 왜 그런지 얘기를 한 번만이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듯 해요. 결혼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공정성 인식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LongTimeH: 교육기회 공정성 인식도 기혼자와 미혼자는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자녀 교육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다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상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 여성청년의 교육기회와 취업기회

LED: 제 생각에 지방의 여성청년이 교육기회에서는 그나마 공정하다고 했는데 취업기회에서는 불공정하다고 한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젠더불평등을 느끼는 때가 딱 취업시장에 나왔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교육을 받고 학교 울타리 안에서 경쟁구도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취업 나가는 순간 여성이 약자구나 젠더불평등 구조 속에 내가 있구나를 느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서 저는 이 연구가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아쉬운 게 이 논문이 되게 촘촘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한마디라도 그 왜에 대한 답변을 쓰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D.C.: 불공평하다는 거가 비교에서 비롯된 건데 수도권 여성하고 지역 여성하고 결국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도 그렇게 불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비교를 꼭 여성하고만 할 거냐 남성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LED: 둘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당사자성을 이입해 보면 난 어차피 지방에서든 서울에서든 똑같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방에 있는 청년이라고 그게 불평등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성별 변수를 집어넣어서 비교 대상을 남자로 잡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평등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정성 인식은 무엇인가?

D.C.: 사실은 공정성 인식이라는 게 되게 사회탐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가 불공정해! 이근데 남성이 사회탐을 더 많이 하고 여성은 덜 한다 이근데 왜일까는 모르겠어요.

LongTimeH: 저는 공정은 비교랑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공정하다는 건 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공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별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교육이나 취업기회로 구분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엄청 큰 범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 좀 분류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비수도권 남성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는 수도권 이랑 비교를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느낀 건 자녀교육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기혼자가 많으니까 그런 정도의 좀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D.C.: 경제적 불평등하고 공정성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 불평등 인식 가지고 질방을 하면서 지방청년들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식은 현실하고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도 재밌는 연구 포인트죠. 뭔가 인식이 중요하더라도 하면 그럼 현실은 안 좋아도 인식만 좋다고 느끼면 그게 좋은 세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인식이 좀 좋아지면 개개인이 살기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LongTimeH: 저는 그 얘기 들으면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였는데 인터넷이 보급되니까 행복지수가 엄청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본적이 있어요.

LED: 맞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사회구조를 바꿀지 사회구조가 인식에 영향을 미칠지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문제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뒤에 초점을 두자가 아니고 여기서도 연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학에서는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논문도 연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쫄쫄한 촘촘한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성 인식 연구의 새로운 틀

D.C.: 저는 뭐를 하면 재밌을 것 같냐면 취업하고 난 이후랑 이전이랑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취업을 하면 나에게 기회를 준 이 세상은 공정한 사회인 거고, 취업하지 못했다면 불공정한 거죠. 나는 능력이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취업전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LED: 어쩌면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전후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니까 교육과 취업을 굳이 왜 나눴을까 했는데 교육이 첫 번째 단계고 취업이 두 번째 단계여서 그런 식으로 루트를 한 것 같고, 또 지방 여성청년이 교육은 공정한데 취업은 불공정하다는 거 보면 교육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불공정하다 그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남성청년이 불공정 인식 높아

D.C.: 지역 남성청년이 더 불공정하다고 느낀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하고 비교를 남성이 더 많이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취업 경쟁상대가 남성의 경우는 약간 전국구적으로, 특히 지역청년들은 수도권 일자리랑 되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수도권 일자리랑 비교를 하는 남성이 많냐 여성이 많냐 비율로 봤을 때 남성이 더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건가?

LongTimeH: 또 추측을 해보자면 여기 보면 직종으로 나누잖아요. 사무직도 있었고 기능직이랑 차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수도권 쪽에 불공정하다고 느낄 만한 직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나? 직종별로 분포도가 사실 다르잖아요.

LED: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이 아니고 울산 지역 같은 경우 엔지니어가 그쪽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불공정한 인식이 나타나고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럴수도 있겠네요

정치성향과 공정성 인식

LongTimeH: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변수도 재밌었어요. 진보와 보수 성향 가지고도 공정을 측정하고, 성장-분배 선호도 가지고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봐서. 이렇게도 많이 하는구나 약간 그럴듯해요

D.C.: 그런 변수는 저자가 정치성향 변수를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보고 싶었던 건 지역하고 젠더죠. 근데 선행연구들에서 이런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통제해놓고 그 위에서 나는 지역이랑 젠더 차이를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주면 정치성향이 갈려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넣어놓고 이거 다 통제했어 그러고 나서도 차이가 있었어 이렇게 가는 거죠.

4. 마무리

본 논문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과 공정성 문제를 지역과 젠더로 구분해 보았다는 점에서 토론 주제로 정했다. 지역여성청년이 교육과 기회의 불공정인식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역남성청년이 더 불공정인식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며 토론해 보았다.

먼저, 지역여성청년이 수도권여성청년과 비교해 서비스업 중심의 낮은 일자리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불공정인식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로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서비스업, 최저임금, 경력단절로 수렴하는 여성일자리가 지역여성청년의 기회불공정 인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지역남성청년이 기회불평등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담론은 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청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지역과 젠더

김수아. 2021. 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 젠더 관점의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13권 2호. p.251-286.

1. 논문 선정이유

LongTimeH: 청년정책이 관심 연구주제이기에 여성과 청년정책을 키워드로 서칭을 통해 해당 논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본 논문은 주 연구 분야인 사회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정책적, 법학적 관점으로 주제를 풀어나가고 있어 흥미롭게 느껴졌고, 청년정책에 대한 고찰의 키워드가 분명하고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 정치적 관점이 들어가 있어 연구 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정했어요.

2. 논문 비평

LongTimeH: 성평등 동아리 논문 비평 마지막 논문으로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논문이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논문의 연장선으로 지난번 논문은 왜 청년들이 각각의 다른 욕구와 정책을 수요로 하는지의 증빙 자료라 한다면, 오늘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청년들은 각기 다른가? 왜 청년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는가? 하나의 청년 담론으로 묶을 수 없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청년 젠더 주제를 다루는 논문으로도 좋았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있다면 공정성 담론에 대해서 기초적인 방향부터 하나 하나 짚어가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일반적으로는 투입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적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점이 문제인거죠. 또 기본적으로 남성은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여성은 취업과 임금이라는 점에서 청년 정책에서 얼마나 청년여성에 대한 문제점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조명하는 것도 좋았고 간결하지만 기본적으로 짚어줘야 될 것을 다 짚어주고 있어요.

LED: 청년 정책 관점에서 청년이 마치 이행기처럼 다뤄진다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좋았어요. 예를 들면 청년을 마치 이성애 정상 가족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거장처럼 보아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여성은 결혼할 테니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식으로 정책을 공급하는 사례를 다양하게 잘 짚고 있어요. 저자의 논문이 항상 젠더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고 연령을 떠나 최신 트렌드에 맞는 논문 주제를 쓰시는 분이라 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ongTimeH: 리뷰논문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연구를 진행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빌려서 하다 보니 어떠한 연구라고 봐야 되는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논문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갖고 와서 뒷받침해주는 식인데 연구를 하여 분석을 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자기 주장을 정리했고 독자로 하여금 본인의 연구를 할 때 서론이라든가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방증해 주는 참고 논문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D.C.: 논문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주목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연구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책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보니 논문에서 이 부분을 짚어준 것은 흥미로웠어요. 왜 페미니즘 관점이 아니라 젠더 담론, 젠더 관점이라고 했는지 생각했는데 앞에서는 여성 얘기하고 뒤에서는 성소수자까지 포함을 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로웠어요.

LED: 다소 아쉬운 건 고차원적인 지적을 하는 부분은 부족했어요. 논문의 마무리에도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실증적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한계점도 존재해요. 반면 청년정책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연구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주거안전에 대한 이슈에서는 지역의 청년정책에서 실현 가능할 수준으로는 정책이 있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같은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D.C.: 청년기본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서 정책을 만들 때는 우선순위 논리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선순위에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할 텐데 그것이 부족해 해당 주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3. 토론거리

취약계층에 추가할 수 있는 청년

LED: 논문에서 청년정책 대상자에 대해서 정리해주는데, 일반적인 청년이 있고 취약계층 청년으로는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청년, 한부모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청년, 성소수자 청년이에요.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영 케어러 및 가족 돌봄 하는 청년을 여기다가 추가하면 어떨까요? 또, 보호종료아동이 청년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도 이 안에 포함을 해서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선 안돼요.

청년 기본법의 개선점

LongTimeH: 정책참여에 대해서도 청년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책결정단계에서 구성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조건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정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의결권이 없다거나 심의권만 있다거나 한다면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참여의 영역을 넓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정할 수 있는 자리에 사각지대의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청년들이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LED: 참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네요. 참여 관리 분야에서 20~30%의 할당제를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면 복지 문화 분야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문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지.. 해당 분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분야를 나눠놓은 건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LongTimeH: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전제는 청년 계층이 복지를 제공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금 돈을 모으기 힘들니까 금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줄게' 하는 식의 가능한 선에서의 금융 지원이다보니, 이게 과연 복지라고 볼 수 있나, 청년의 복지란 무엇인가하는 의문이 들게 해요.

D.C.: 주거 분야도 비슷한 처지인데, 청년주택 공급하고 도심 내에 청년 특화주택을 새로 건설한다는데 이런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은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을 벌고 있는 청년이고, 이 곳에 임대로 가면 임대 보증금도 꽤 나올 텐데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 있거나 이미 일을 할 수 있는 비교적 높은계층인 청년만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마치 청년들이 공유형 주택을 좋아한다면 공유주택 정책을 만드는데 여기를 선호하는 청년은 한정적인거죠. 계층적으로 다양한 사람

들이 모여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정책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에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오는 청년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년이에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그 청년 30%는 굉장히 주류 청년들인 거거든요? 좀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는 한계가 있죠.

LED: 청년기본법 방향에 대한 5개 분야 표에서도 왜 주거랑 복지 문화에만 취약청년과 일반청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청년으로 해버렸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반 청년도 중요하지만 취약청년도 굉장히 일자리 잡기 힘들거든요. 저학력, 계층, 지방 청년 등의 대상자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아요. 지방으로 갈수록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일자리가 적은데 고려 없이 딱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과연 농촌에서는 청년정책이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LongTimeH: 청년 기본법 방향성에 참여기구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청년 활동하다 보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해당 의견이 청년 당사자성이 있는 얘기인지'에 대한 지적이 항상 있어요. 청년참여활동을 할 때 의견을 받아 반영하려는 것이 청년 참여기구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현실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의견을 내고 수용하는 통로는 안 풀려 있고, 주류 청년들은 가서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참여 하는 청년만 참여하고 오히려 정책 지원이 필요한, 소위 말하는 취약 청년들은 배제되는 구조가 생겨요. 다양한 민간 청년단체 또는 중간지원조직 단위에서 청년문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발굴을 지원해줘서 전달할 수 있는 구조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목소리 내기 어려운 청년들을 더 발굴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보면 어떨지 고민이 필요해요.

D.C.: 현실적으로 청년기본계획을 아는 청년들이 전체 청년인구 대비 몇퍼센트나 되겠어요. 저도 몰라요. 참여 권리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취약계층 청년들은 여기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라는 무책임한 말보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4. 마무리

해당 논문의 의미는 그 뒤의 정책 연구에 반영될 수 있는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논문인 것 같다. 이를테면 논문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여성, 그다음에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비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통계를 보든 아니면 인터뷰를 하는 식의 청년정책의 취약점을 가시화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출발선이 되기에 좋은 논문인 것 같다. 저자께서 문화 연구하시는 분이라 더 넓은 시각의 고찰을 할 수 있었다.

청년기본법(2020년)에 기초하여 구성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본법 초기 단계이고 뼈대가 먼저 만들어졌으나 그 안에 내실이 튼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일자리는 특히 직장을 가진 후에도 직장 문화 등에서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고 일반적 남성으로만 중심이 되어 있는 등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건 부족하다고 보인다. 청년 기본법은 2025년까지의 1차 기본 계획의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위에 거론된 빈 부분들을 다음 2차, 3차 계획을 세울 때 더 보강이 되었으면 한다.

맺음말: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지역과 젠더

본 동아리는 청년과 여성과 관련된 총 세 편의 논문을 읽고 학문의 장에 있을 때보다 유연하고 비(非)청년들과 있을 때보다 격식 없이 치열하게 그리고,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때 보다 당사자성을 녹여 주관적으로 논문에 접근하고 비판해왔다. 총 세 편의 논문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정해보자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성 이데올로기(김민지, 2021), 청년의 공정성과 다양성(이희정·박선웅, 2021), 청년정책과 젠더(김수아, 2021)로 정리할 수 있다. 외에도 논문 속에서 부차적으로 다루었던 한국사회의 문제들까지 동아리 내의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세 논문이 청년과 여성이라는 교집합이 있을 뿐 각각 다른 연구영역의 논문들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세 논문의 분석지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거론되는 청년담론의 문제점을 제대로 적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해 세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희정·박선웅(202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과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이 각각 처해 있는 연령, 성별, 지역, 계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느껴지는 공정성 또한 다른 것이라는 게 동아리 토론에서도 여러 번 분석되었다. 이처럼 청년이라는 연령의 범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청년 범주라고 해도 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소에 따라 원하는 정책과 제도, 느끼는 사회적 문제가 다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것이 조금 더 일상세계에서 잘 드러났는데, 김민지(2021)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여성들은 거주환경에 대한 안정과 사회적 인식에 따른 성 이데올로기 등에 더욱 억압당해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둘째, 세 논문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사회의 '청년' 이미지는 정형화되어 있다.

논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청년담론 및 정책, 미디어에서 다루는 청년은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고학력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생애주기에 맞춰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직장에 다니면서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면 이성애 중심의 언젠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여 정상가족을 꾸리는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애 가까운 몰성적인 이미지가 견고하다. 김수아(2021) 또한 청년정책의 대상이 이러한 정형화된 청년의 이미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년 당사자인 동아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청년 이미지에 가까운 청년은 주변에 볼 수 없을뿐더러 이 이미지 또한 비(非)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의 모습이라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거론은 잘 되어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다.

세 논문을 모두 관통하는 문제이자 본 종합토론의 결론적인 지적이다. 청년과 가족, 청년과 공정성, 청년과 정책 등 청년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논문이지만, 결국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유아무야 넘기며 '청년은 힘들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용두사미 구성으로 끝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세 편의 논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논문이나 담론, 정책에서도 비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세 편의 논문을 읽고 본 동아리는 논문 속에서 가리키는 청년이란 누구인지 고민하는 토론을 오랫동안 해왔다. 논문이 청년의 편에 서서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인 청년문제와 담론,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막상 청년 당사자들이 읽으면 또 의문을 갖는 부분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종합토론에서 쉽게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향후 청년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보다 넓은 스펙트럼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 탈정형화된 이미지를 관점과 도구로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 2> 주차별 활동 및 토론 요약

1. 청년세대 고학력 비혼 1인가구 여성의 거주 공간의 경험을 통해 본 가족, 성 이데올로기의 저항과 수용, 변형	
선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거주 공간을 분석한 연구 •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성, 가족 이데올로기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잘 풀어낸 연구
비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력, 비혼, 1인가구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1인 가구를 선택한 경로와 가족, 인간관계, 차인따 안 전, 사회적 인식 등을 분석 •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비혼여성의 노후까지를 고려한 분석 • 인터뷰를 통해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기술력과 뛰어난 구성 • 고학력의 청년 여성들로 연구참여자 조건을 구성했기 때문에 계층과 관련한 논의가 제한적임 •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하는 '집'이라는 속성이 계층과 세대의 맥락으로 고려해볼 수 있었으나 드러나지 않음
토론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과의 교류와 여성의 안전 • 독립에 대한 전제치기 • '신(新)전통주의적 가족제도'와 젠더, 계층 • 청년세대의 독립 • 다양한 생애주기 모델의 부재 • 다양한 가족, 다양한 거주형태에 대한 인정
2. 청년층의 기회 공정성 인식 분절화: 지역과 젠더 관점을 중심으로	
선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음 • 청년들이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 • 지역과 젠더라는 두 가지 교차점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점
비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젠더의 두 가지 교차점에서 오는 편이한 결과가 나와 추후 연구할만한 요소가 많음 • 양적 방법론을 잘 이용한 논문으로 다양한 분석 틀을 이용함 • 청년층을 가정사실화하여 바라보지 않고 지역과 젠더에 따라 서로 교차되는 의견이 제시됨을 보여주는 논문 • 교차되는 의견에 대한 추가 질적 연구가 필요해보임
토론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계층의 청년이 많은 자료 • 지역여성청년의 교육기회와 취업기회 • 공정성 인식은 무엇인가? • 공정성 인식 연구의 새로운 틀 • 지역 남성청년이 불공정 인식 높아 • 정치성향과 공정성인식
3. 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 젠더 관점의 고찰	
선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연구 주제에 여성과 청년 정책이 있었음 • 사회학적인 관점이 아닌 정책적, 법학적 관점인 점이 흥미로움 • 청년 정책에 대한 고찰의 키워드가 분명, 그 외에 철학적인 고찰, 정치적 관점이 있음.
비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성 담론에 대해서 기초적인 방향부터 하나씩 짚어가는 점 • 청년 정책 관점에서 청년이 마치 이행기처럼 다뤄진다는 부분을 비판 • 연구를 하여 분석을 하기 보다는 다른 연구의 리뷰 형식 • 실질적인 연구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한계점 • 연구 주제의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논문으로서의 가치
토론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 추가할 수 있는 청년 • 1차 청년 기본법의 개선점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은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읽힐까가 걱정이었다. 남성으로서 젠더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다. 매일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격의 없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사회학과 대학원생임에도,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문제인 젠더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만족 할만한 말만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된다.

D.C.

우선 논문 선정부터 고민이 있었다. 관심 연구 주제가 청년정책이다 보니 여성과 청년정책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는 논문을 서칭하려 노력했다. 키워드로 논문은 찾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주 연구 분야인 사회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정책학, 법학 관련 논문이라 선정에 대해 약간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고찰의 키워드가 분명하고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 정치적 관점이 들어가 있어 연구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정했고, 다 읽고 나서는 선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다. 성평등에 대해 정말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애매한 공감과 편협한 시각으로 성평등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하며 연구자적 관점으로 스스로를 검열하며 논문을 탐독했던 것 같다.

LongTimeH

동아리 활동의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 논문 선정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제일 많은 노력을 할애했다. 성평등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청년의 '당사자성'이 담겨있는 논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에서 만큼이라도 청년 이슈를 제3자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관점, 당사자성이 배제된 논문은 최대한 기피하려고 했다. 나아가 동아리 구성원들이 각자의 관심분야와 현재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의 당사자성을 녹이기 위해 청년, 젠더, 사회학, 지방청년, 1인가구, 가족, 정책 등을 키워드로 가지고 논문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어쩌면 동아리 활동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과정이었던 거 같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연구 관심 분야와 당사자성이 잘 녹여있는 총 세 편의 논문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LED

활동 과정을 통한 성장과 노력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것이, 읽고 메모만 하는 것보다 같이 토론하는 것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문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은 나의 편협함을 다소나마 보완해준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를 만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함께해준 동아리원에게 감사하다.

D.C.

양적 연구, 질적 연구와 주장과 고찰을 정리한 논문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석사과정에 막 입학한 이후로 논문을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 연구 방법을 새로이 접할 수 있어 연구자적 시야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LongTimeH

대학원생이기에 논문에 대한 비평은 수업시간이나 대학원생 세미나에서 자주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 동아리 활동처럼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으며, 학술적인 관점을 항상 곁들여야 했기에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은 청년과 성평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집중적인 비평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 학술적인 자리가 아니고, 또래의 청년 대학원생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더 편하게 토론할 수 있었다. 나아가 청년인 내가 개인적으로 고민했었던 사회적 이슈들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로서 고민해 본 경험 또한 대학원 내부에서 해보지 못한 기회였다.

LED

글. 그림. 이야기

L()

성평등, 페미니즘이란 우리의 삶과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Love, Light, Life의 ‘L’과

무언가를 말할 때 입 양쪽으로 손을 모으는 모양을 형상화한 괄호 ‘()’를 합쳐

‘L()’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거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유진, 현은아, 임소연

어린이 장난감·미디어 속 성차별적 요소 조사 및 해결방안 탐구

어린이가 주로 접하는 장난감이나 웹툰·아동 대상 만화영화 등의 미디어 콘텐츠에 드러난 성별 고정관념·성차별적 요소를 살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보았습니다.

이유진

얇고 넓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

현은아

꾸준히 밝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임소연

변화하지만 변함없는 사람

사업 참여 계기와 목표

그리고 활동의 기록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아도 일상 속에 매우 미세하게 스며들어 있으므로 그 영향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다시 돌이켜보면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그것이 무의식중에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된 조원들이 모여 현재의 어린이들이 접하는 콘텐츠는 과거에 비해 나아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난감부터 시작해 웹툰·아동만화 등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성차별적 콘텐츠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교육과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회차에서 영화 ‘미니 미스’를 함께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2회차에선 지역의 대형마트에 방문해 장난감에 반영된 성별고정관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3회차에선 웹툰과 애니메이션과 같은 미디어 속 성차별 문화를, 4회차에선 2·3차에서 이야기했던 성차별적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성평등·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한 뒤, 마지막 5회차에서 그동안의 활동과 스스로 변화된 지점에 대해 되짚어보았습니다.

총 5회차에 걸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접하는 콘텐츠에 성차별적 문화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다 성평등한 미래를 위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콘텐츠를 생산하는 어른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활동 결과

(활동의 시작)

예전에 즐겨보던 만화나 드라마를 다시 찾아보면, ‘이걸 재밌게 봤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엔 알지 못했던 성차별적 요소가 곳곳에서 보여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한다. ‘지금의 아이들이 보는 건 나아졌을까?’ 이 활동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

(요약하자면)

브라질의 아동 미인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미니 미스’를 보며 어린이에게 요구되는 ‘성별 역할’에 대해 살펴본 뒤, 아이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장난감과 미디어 콘텐츠 속 성차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나아가 아이들이 성평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평등·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하나, 영화 ‘미니 미스’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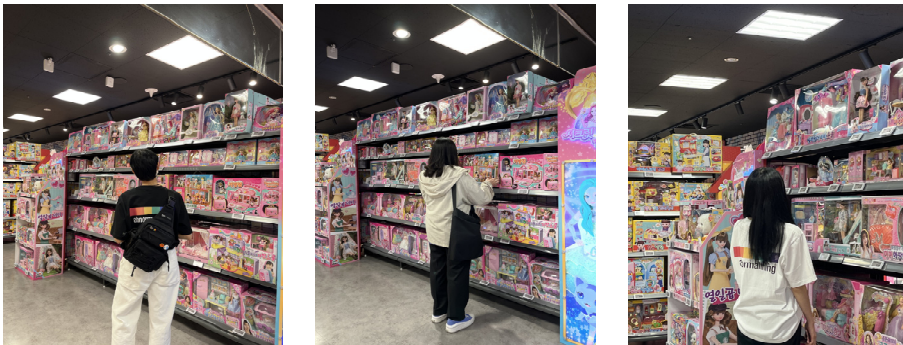
단편영화 ‘미니 미스(MINI MISS)’

네 살배기 여자아이 다섯 명이 미니 미스 브라질 선발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경쟁한다. 영화는 아동기 경험, 그리고 어른들의 기준과 욕망으로 점철된 세상에 맞서는 아이들의 타고난 저항력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제공한다.

출처: 제13회 여성인권영화제

제13회 여성인권영화제 상영작 ‘미니 미스’를 동아리원들과 함께 감상한 뒤, 여자아이들이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성별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이 영화는 대회에 나온 4살 여자아이 다섯 명을 중심으로 촬영된 다큐멘터리다. 영화에 나온 엄마들은 심사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이로 하여금 선물을 돌리게 하고, 무대에서 캐워크를 할 것을 강조한다. 대회에서 우승한 한 아이는 기뻐 보이지 않고, 대회 후 식사 자리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다 결국 소리를 지른다. 어렸을 때 무의식중에 받아들였던 ‘여자아이의 역할’과 그것이 성장기,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들, 지역 ‘대형마트’ 장난감 판매점에 가다



둔산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의 장난감 코너에 방문하여 장난감에는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각자 인상 깊은 장난감의 사진을 촬영했다. 각자 조사를 마친 뒤, 왜 그 장난감을 촬영했는지, 어떤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본적으로 여아용·남아용 장난감 코너가 분리되어 있었고 남아용 장난감은 주로 로봇, 자동차 등 활동적인 장난감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여아용 장난감 코너는 진열장부터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공주처럼 꾸미고 산책가자!’라고 적힌 유모차 장난감, *순이 주방 놀이 세트, 메이크업 색칠 놀이 등 여성들이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가사노동, 꾸미노동이 장난감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성별 고정관념이 가장 두드러졌으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또한 장난감에 반영되어 있었다. 가족의 모습을 한 장난감이 매우 적었는데, 엄마·아빠·자녀로 구성된 가족 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셋. 웹툰·아동용 애니메이션 속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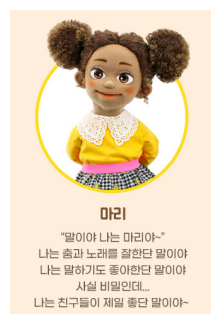
조원들 모두 아동용 애니메이션에 대해 사전지식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웹툰 또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찾아보고, 어떤 성차별적 요소들이 있는지 조사한 뒤 만나기로 했다. 웹툰은 ‘편의점 셋별이’, ‘별이삼삼’ 등을 통해 웹툰에서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로보카 폴리’, ‘꼬마버스 타요’, ‘냉장고 나라 코코몽’ 등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모두 4명~9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중 여자 캐릭터는 많아야 2명 정도였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남자 캐릭터들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으로 표현되지만, 여자 캐릭터는 분홍색으로 대표되며 긴 속눈썹과 리본 등으로 꾸며져 있다.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로보카 폴리’의 경우 최근 4개의 캐릭터가 추가되었는데, 여자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였다. 여전히 분홍색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표정이나 성격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며 리본과 같은 장식이 줄었다. ‘딩동댕 유치원’은 춤과 노래, 말하기를 좋아하는 다문화 어린이 ‘마리’, 운동도 먹기도 놀기도 좋아하는 ‘하리’, 휠체어를 타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하늘’ 등 기존의 아동용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전형을 벗어났다.



출처: EBS, 로보카 폴리



출처: EBS, 딩동댕유치원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성별을 색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많은 아동용 만화에서 여전했다. ‘보로로’나 ‘타요’, ‘폴리’ 등 제목에 이름이 들어간 중심 캐릭터는 모두 남자 캐릭터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여자아이들이 이입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 안타까웠고 한편으로 남자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분홍색을 좋아하거나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또래문화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러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지,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이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넷, 2·3차 활동을 바탕으로 성평등·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찾아보다



과연 아이들은
어떤 말을 들어왔을까?
(출처: KBS 거리의 만찬)



여자애들이 점심시간에
다 축구하러 나가는 학교
(출처: 닷페이스)



얼핏 뭉뚱 예능이
초6에게 미치는 영향
(출처: 슬랩)

세 영상을 함께 보고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세 영상 모두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아웃박스’ 소속 교사들의 수업 사례와 교사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여자는~’, ‘남자는~’이라고 들은 이야기를 발표하거나, 즐겨보는 예능을 함께 다시 보며 미처 알지 못했던 성차별적 요소를 되짚어보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성차별적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꺼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광고나 예능과 같은 미디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것을 비틀어보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활동을 마치며】

다큐멘터리 감상부터 시작해 장난감 판매점 답사, 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긍정·부정적 사례 조사 등의 활동 과정을 거쳤다. 아이들이 노출되는 성차별적 미디어와 콘텐츠를 살펴보며 동아리원 모두가 이야기했던 건, 한 가지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정말 의미 있는 성평등 수업을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평등 동아리 활동을 하며 우리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했다. 활동이 끝나도 고민은 계속되겠지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더욱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활동을 마친다.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5회차 동안 어떤 주제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다. 어린이 장난감과 아이들이 노출되는 미디어 속 성차별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유진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주제 선정이나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활동기록서를 작성할 때, 내 생각이나 활동 후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꼈다.

은아

아무래도 아직 배워가는 입장이고, 알아갈 것이 많은 상황인데 동아리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내 생각이나 활동이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소연

활동 과정을 통한 성장과 노력

2019년 여성인권영화제에서 우연히 봤던 영화 ‘미니 미스’, 지나가듯 읽었던 ‘딩동댕 유치원’에 다문화 아이 캐릭터가 등장했다는 기사,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 모임 ‘아웃박스’ 소속 교사가 나온 방송 프로그램과 닷페이스 유튜브 등 의식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 온 나름의 배경지식이 이번 동아리 활동에서 유용하게 쓰인 것 같아 부듯하다. 총 5회차로 길지 않았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활동을 시도한 건 새로운 경험이었고 재미있었다.

유진

성차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활동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특히 활동 2회차 때 한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에 방문하여 장난감에 드러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린아이의 장난감에서조차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일상 속 성차별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은아

평소에 성평등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주변을 둘러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을 다시 살펴보거나,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를 돌아보는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변에 성차별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소연

글. 그림. 이야기

오토

소외된 모든 것을 조명하는 팀 오토입니다.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여 다양한 예술을 기획합니다.

오토는 온통대전의 받침을 뺀 글자로 대전을 거점으로 하며, 대전의 색을 담고 있습니다.

한은성, 김단비, 전아라

대전 여성장애인 자전공연 ‘진희의 꿈’

치료적 자전공연(Autobiographical therapeutic performance:ATP)은 참여자의 삶에 초점을 맞춰 공연을 제작하는 연극치료 기법 중에 하나로 참여자가 직접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삶의 이슈들을 말하고 공연을 보러 온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습니다.

오는 10월에 막이 오를 공연인 ‘진희의 꿈’은 중증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 진희님이 공연의 주인공이며, 연극치료를 통해 진희님의 삶을 둘러보고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연출 겸 배우, 배우, 연출자가 모여 성평등, 더 나아가 여성 장애인의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은성

본 공연의 연출겸 배우이자 세상의 소외된 모든 것에 팔을 벌려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김단비

연극이라는 공연 예술 장르를 통해 사회의 이면을 표현하여 연대하는 사람

전아라

진희의 꿈에 배우이자 진희님의 친구이고,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사람

사업 참여 계기와 목표

우리의 활동은

첫째

복지와 관심 등 다각적 시각지대에 놓인 여성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의 삶을 무대 위에 올려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다시 그에게 돌린다.

- 뇌성마비 성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대상과 규모 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
- 사회적으로 규정한 장애에 대한 시각의 변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해결 방식도 달라진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어떤 불평등과 차별을 느끼는 나와 같은 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로서의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 문화 상용화
- ‘함께 사는’ 사회로 다가가기 위한 예술적 도약 - 함께 산다는 것은 모두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당연하고 편안하게 누려온 만큼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왔다. 이제는 당연한 것들을 바꿔나가야 할 때다. 모두가 관객이 될 수 있게 극장과 공연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는다.

둘째

연극치료를 통해 참여자의 심리안정 및 삶의 긍정적 변화를 불러온다.

-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가족의 돌봄을 받거나 시설 안에서 생활을 한다.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시설을 나와 대부분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도 나이가 들면 가족들 또한 나이가 들어 본인 때문에 힘이 부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 나이가 들어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좌절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

- 또한 여성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남성 뇌성마비 장애인들에 비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등 성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성적, 물리적 폭력과 학대에 놓이게 될 경우 저항이 통하지 않아 주변인들의 발견과 도움이 없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 뇌성마비 장애인의 생애주기는 비장애인과 움직임에서 자유로운 다른 장애인들과 크게 다르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어가며 더욱 극명해지는데, 중증 뇌성마비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비율이 매우 낮고 장애인 시설이나 가족의 돌봄 속에서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노년기에 접어들 때, 부모가 죽고 나면 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양쪽 모두에게 전가된다. 결혼과 섹스 또한 사회 안에서 불가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애정에 대한 결핍, 욕구 불만 또한 나이가 들며 더욱 가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이 중증뇌성마비 여성의 자아존중감을 훼손시키고 우울감의 지속으로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 뇌성마비인은 중증·중복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체적 문제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심한 고통 등으로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또한 ‘뇌성마비인과 같은 전반적 중증장애인’(이하 뇌성마비인)은 가족, 또래 집단, 일반사회로부터 고립·격리되며, 그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이 초래되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입학, 졸업, 결혼, 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전환 시기 마다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셋째

비장애인, 기득권이 사유하는 실연예술 속 경계를 허물고 지역의 장애인과 여성, 청년들이 만나 직접 공연을 실현한다.

- 다양한 장르의 대전 청년 예술인들간의 협력 -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과 연결하고 협업하여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장르를 넘어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전에 전무한 문화예술 네트워크가 창작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 매체와 무대에서 타자화되어 왔던 소수자, 약자, 장애인들의 이야기. 이제는 당사자성을 갖고 근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소수자가 무대 위에 올라야 한다.

서로의 목표는

“평소에 인권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가까이 주변에 장애인 당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특히 여성 장애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지 궁금하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 친구를 만나 그의 삶을 면밀히 바라보고 내 위치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은성

“연출, 배우, 스텝진 대다수의 팀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공연팀은 극히 드물어서 반갑고 우리가 앞으로 해내갈 일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공연 과정 동안 진희님의 삶을 함께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그것을 관객들과 함께 느끼고 싶다. 여성 장애인의 삶을 대본 안에 잘 녹여내 이 사회의 문제와 여성장애인으로 느낀 개인의 고통을 함께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단비

“자전연극이란 새로운 연극적 시도에 앞서 기대가 크다. 주인공으로 만나는 진희님의 삶이 관객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배우로서 역할을 잘하고 싶다. 공연을 본 관객들이 나와 다른 특별한 삶을 보고 놀라기보다 자신의 삶을 떠올리고 함께 웃고 함께 슬픔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본을 잘 제작해야겠다.”

아라

활동 결과

공연의 시작

관계 형성 및 동맹 맺기

본격적인 공연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로의 삶을 듣고 라포를 형성하는 연극 치료 작업을 진행한다. 공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내·외면의 이슈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사람 사는 것이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진희님의 삶은 비장애인의 삶보다 더욱 굴곡이 깊고 험난했다. 그러한 이유 안에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변치 않는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발견한 진희님이 직면한 사회의 문제점

- 1 : 뇌성마비 장애인도 지적 장애인처럼 인지가 어려울 것이란 오해
 - 진희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함
 - 이유 없는 인격적인 무시와 놀림을 많이 받음
- 2 : 저항할 수 없는 여성 중증 장애인의 취약성을 노린 폭력
 - 성폭행, 성희롱 등
- 3 : 복지의 사각지대
 - 휠체어 장애인으로서 이동을 하는데 제한이 많음 (몇 대 없는 장애인 콜택시. 사

실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저상 버스,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전해지는 지원금 및 도움 서비스의 한계
- 계단, 턱, 테이블 높이, 휠체어석 없음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움직이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유년기 둘러보기

대본 제작 초기의 유년기 부분을 연극치료 작업을 통해 점검한다.



“즐거웠던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던... 유년기를 함께 둘러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 역시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어린 시절 장애인은 받아주지 않았던 국민학교와 말을 잘하지 못한다며 따돌리던 친구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챙기기 위해 애를 쓰시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모두가 알고 앞으로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 있도록 대본에 잘 녹여내야겠다고 느꼈다.”

삶의 풍경 그리기

인생 전반을 둘러보고 나의 삶의 풍경을 그린다.



“그녀의 삶의 풍경 속에는 ‘꿈’이 가득 찼다. 바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그림이었다. 초원에서 말과 함께 달리기, 스카이 다이빙, 분홍드레스 입기, 찜질방 가기, 자전거 타기...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떤 이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현재 당연하게 인식되는 것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길거리에 널려있는 자동 킷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보급하는 예산으로 장애인 이동수단을 늘린다면? 비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지체장애인이 입기 힘든 옷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리로 제작된다면? 비장애인이 쉽게 다니는 초원, 관광지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 수단을 확장 시킨다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게 되고 하나씩 변화한다면 오늘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꿈 같은 일이 아닌... 비장애인이 누리는 것처럼 쉽고 편안한 즐길 거리가 될 지도 모른다.”

남은 인생 채우기

연극 안에서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본다.



“그녀의 버킷리스트는 찜질방 가기, 분홍 드레스 입기, 모델처럼 런웨이 워킹, 운전하기, 바닷가 가서 엄마랑 조개 줍기, 스카이 다이빙, 댄스 스포츠. 이 모든 것을 연극 안에서 다 이뤄 보았다. 그녀도, 우리 모두도 배꼽 빠지게 웃으며 함께 행복감을 느꼈다.”

다시 만난 스텝들과 첫 리딩

그간 진희님과 연출자,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 낸 대본을 모든 스텝들과 리딩하고, 런(공연처럼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하는 것) 참관한다. 각 파트별(음악, 영상, 무대 디자인, 연출부, 배우) 감독과 만나 공연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첫 리딩은 연습 내내 설렘과 긴장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후 스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음악 감독 A “극 초반부터 몰입도가 좋아서 정말 재미있게 들었다. 진희님 삶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들도 담겨서 좋았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 장애인에게 또 다른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의미가 아닌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전해졌으면 좋겠다.”

음악 감독 B “리딩을 듣기만 했는데도 한 편의 연극을 본 것 같았다.”

영상 디자이너 “영상으로 장소의 변화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공연준비의 끝

우리는 연극치료 작업을 통해 진희님의 삶을 한 권의 대본에 녹여내는데 성공했다. 이 안에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여성 진희님의 삶이 담겨 있으며 그녀가 마주한 사회의 벽,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진희의 꿈 대본 최종본 표지)

줄거리

‘박진희. 나는 2남2녀 중 4째입니다. 어릴 때 경기로 인해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형제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세상에 태어난 진희.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엄마의 사랑이 있어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국민학교에 갈 나이가 된 진희는 언니 오빠들처럼 학교에서 공부할 생각에 들뜨는데 국민학교에서 장애인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원하는 것은 이루고야 마는 진희는 공부를 위해 집을 나와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데 집 밖 세상은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힘난한 사회 위에서 꿈을 위해 느릿느릿.. 모진풍파 헤치고 꿈에 닿았을 무렵 진희는 인생을 알게 된 중년에 다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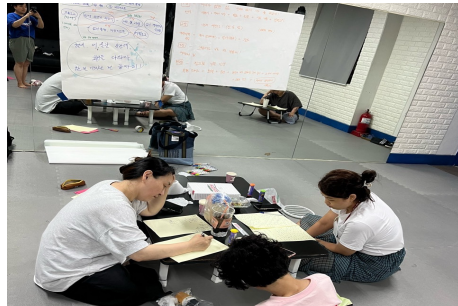
공연을 준비하며, 기록들

대본 제작을 위한 연극치료 작업



공연을 준비하며, 기록들

연극치료 과정을 통한 대본 공동 제작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연극치료 작업을 통해 중증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의 삶을 함께 둘러보고 그것을 공연 대본으로 제작하였다.

연출부 입장에서

주인공의 삶에 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듬고 플롯을 구성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비극적이기만 할법한 주인공의 자전극이 어둡지 않고 오히려 밝은 희망으로 가득한 것은 진희님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정신에 있었다. 끝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온전히 본인이 바라는 것을 향해 느리게 달려가는 진희님은 연극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는 영웅이 아닐 수 없다.

배우 입장에서

진희님 삶을 표현하는데 다양한 모습의 악역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고통을 주었던 대사와 상황을 함께 장면으로 꾸미며 같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 그것은 같은 여성이기에, 같은 사람이기에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연대였다.

우리가 느낀 성평등, 더 나아가 여성 장애인의 성평등이란

‘진희의 꿈’속에서 진희가 꾸는 꿈들은 거창하고 특별하지 않다. 어쩌면 비장애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일일뿐이다. 진희 꿈이 언젠가 진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때가 여성장애인의 성평등에 가까워지는 때라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기득권 기준에 맞춰진 사회질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평등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곳에서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연습 공간을 마련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 건물에는 턱과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턱이 없는 연습실을 마련해서 연습을 진행했지만 화장실이 2층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진희님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도보 2~3분 거리의 다른 건물로 가서 볼일을 보셔야 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를 잡기가 어려워서 약속된 연습 시간보다 진희님이 늦게 도착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저녁 이후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아예 잡히지 않아서 몇 달 동안은 연습이 끝난 후 진희님과 휠체어를 개인차에 싣고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 했다. 또한 휠체어를 끌고 밤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취객, 건장한 남성에게 대한 두려움과 위협을 자연스레 느꼈다.

은성

휠체어 탄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고, 이동권의 자유도 없다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성으로서

단비

공간의 어려움과 장애인콜의 어려움. 진희님과 함께하면서 딱 두 가지가 힘들었다. 우선 배차가 성공해야만 연습실로 올 수 있는 조건과 아무래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공간을 얻기란 어렵고 그나마 지금 하는 연습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바로 앞 병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아침부터 예약해야 하고 그마저도 쉽진 않다.

아라

활동 과정을 통한 성장과 노력

공연을 참여하기 전에는 주변에 장애인 당사자가 없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와 닿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진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분들의 이동 문제와 건물, 길거리에서 허다하게 발견되는 휠체어 진입장벽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진희님의 삶 전체를 함께 바라보고 연극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경험하며 여성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든 성적, 물리적 모든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연극을 통해 관객들에게 우리가 느낀 것을 공유하며 극장 안팎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나도 힘을 보태야겠다고 느낀다.

은성

작업 과정을 통해 깨달은 바는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이 살기 힘든 사회라는 것,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지우는 사회라는 것.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만나보고 함께 무언가를 일구어 가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안에 고정관념과,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을 누리는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내겐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 이런 현상들에 물음표를 갖지 않으면 진실보 할 수 없음을 배웠다. 프로젝트 '연극 진희의 꿈'의 참여하며 나의 세계는 확장 되었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우리의 과정과 공연은 대전지역 내 유의미한 프로젝트로 남을 것이다.

단비

장애인 자전극이란 말을 들었을 때 생소했고 만나기 전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다. 내가 아는 중증장애인의 모습은 소통이 되지 않고, 과묵하며 보호자가 없다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다 였기 때문에. 하지만 장애인 여성이 연극을 한다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느꼈고 어떤 형태로 공연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연습이 진행되면서 진희님의 일생을 만났고 그 속에서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진희님의 대단함을 느꼈다. 이제는 연습을 하면서 진희님과 가까워질수록 공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이 공연으로 하여금 관객, 배우 모두가 행복해 질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아라

IDEA

《청년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의
참여자들에게 물어보았다

A. ‘성평등한 OO’을 꼽는다면?

B. 당신에게 ‘성평등’이란?

BIGWAVE 조수은
A.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란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적 대상화가 없는 사회, 성별 간 임금 차별이 없는 사회,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 그리고 페미니즘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회다.
B. 당연함
나에게 ‘성평등’이란 ‘당연함’이다. 성평등은 무언가를 재고 따지는 게 아닌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우리가 알기알부할 토론 주제가 아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공동의 목표일 뿐이다.

CGSN D.C.
A. 성평등한 참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문장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문장과 같다.
B. 계층과의 공통 또는 차이
젠더와 계층은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발현되는 주요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공통점과, 시각적·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차이점을 가진다.

L ()

이유진

A. 성평등한 식물

식물들의 세계에선 성별이 큰 의미가 없다. 성별이 나누어져 있는 식물도 있고, 아닌 식물도 있다.

B. 온전히 자신으로 사는 것

여자아이는 분홍색, 남자아이는 파란색. 겨우 성별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색을 고를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 성차별적 문화는 색깔로 시작해 체육활동, 잘하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과목, 집과 사회에서 주어지는 역할까지 진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토

한은성

A. 성평등한 ‘안전한 이동권리’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월할 때 이동할 권리가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밤거리를 도보, 휠체어로 돌아다니더라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안전감 또한 마련이 되어야 한다.

B. ‘약자’라는 단어가 없는 사회

여자, 장애인, 소수자 등의 이름 뒤에 약자의 의미가 더 이상 따라 붙지 않는 차별 없는 사회

BIGWAVE

최지수

A. 성평등한 학교

학교가 성차별적이라면 그 안에서 배우고 자라는 학생들 또한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성평등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란다.

B. 변화

작게는 개인의 행동이 변화하고 생각이 바뀐다. 나아가서는 공간이 바뀌고, 물건이 바뀌고, 언어와 법이 바뀐다. 성평등은 변화 그 자체이자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개체다.

CGSN

LED

A. 성평등한 ‘운동장’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바는 비유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단어라 생각한다. 어릴 때 운동장은 주로 남학생들이 점유했던 기억이 있다. 또, 사회의 성별구조의 불평등을 비유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한다.

B. 논문

논문은 연구자의 견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결정체다. 따라서, 연구분야와 주제를 떠나서 연구자의 성평등한 관점과 가치관은 고스란히 논문에서 드러난다.

L()

임소연

A.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노력

현시대에서는 완벽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성평등에 관심을 두고 바뀌려고 노력해서 다음, 그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성차별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B. 공평이 아니라 공정

‘공평’이 평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분배하는 거다. 공정은 올바른 관점에서 공평을 추구하므로 성평등은 공정한 것이다.

오토

김단비

A. 성평등한 일터

차별적 언사 금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 권리 주어지기, 동일임금, 동료를 동료로 받아드릴 줄 아는 태도

B. 소외 없는 세상

함께 분노 할 줄 알고,
함께 슬퍼 할 줄 아는
감수성 있는 사회,
그 누구도 소외된 이들 없이
함께 사는 세상.

BIGWAVE

장수현

A. 성평등한 야망

성평등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내가 꿈꾸는 작은 목표부터 야망까지도 쉽게 꺾일 때가 많다. 여성이 나도 남들만큼의 꿈을 거리낌없이 꾸는 세상을 기대한다.

B. 온전한 한 사람이 된 여성

모든 한 사람의 기준이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닌 여성도 고려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성평등이라고 생각한다.

CGSN

LongTimeH

A. 성평등한 보편성

성평등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당연한,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B. 성평등이란 공기

우리가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 성평등이 우리 생활에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당연히 존재하는 개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

현은아

A. 성평등한 레고 속 사회

레고 프렌즈 캐릭터들은 성별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취미와 직업을 가지고 있다. 레고 프렌즈 속 사회가 현실보다 더 평등한 것 같다.

B. 완벽하기 어려운 것

완벽하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성평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나부터 차근차근 깊게 알아가야겠다.

오토

전아라

A. 성평등한 시선

모든 사람은 본인의 자유의지가 있다. 본인과 다른 모습이라 해서 다른 시선을 보이면 안된다. 이것은 여성, 남성, 장애, 비장애 상관없는 인간에 대한 자유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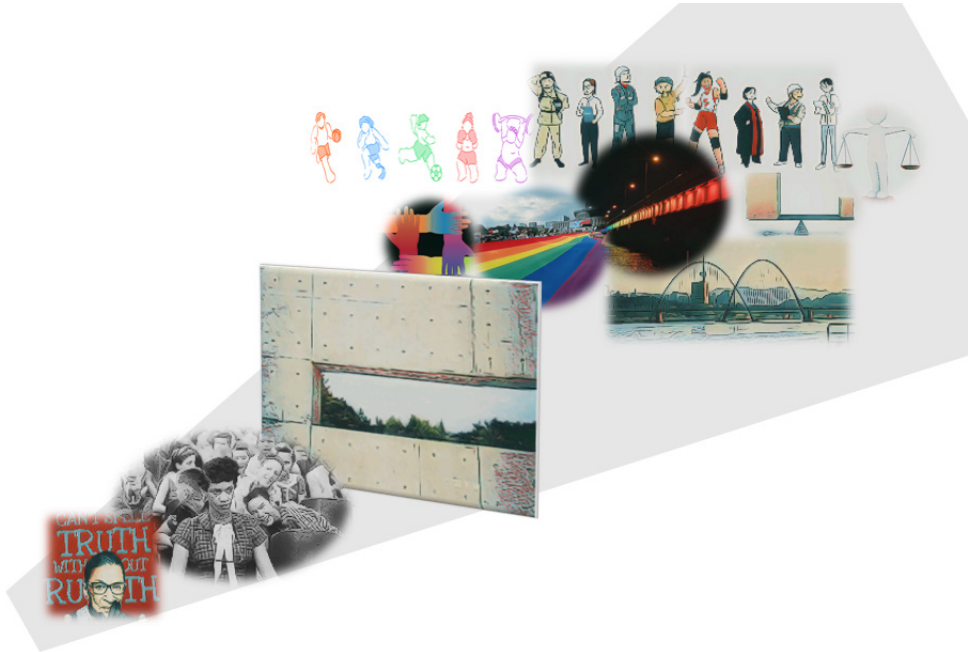
B. 다름을 인지하고 평등한 것

선천적으로 태어난 신체에 대한 무게 높이가 크기 또한 성으로서의 구조를 인지하고 평등한 것

콜라주(Collage)

《청년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비언어적, 시각적 이미지를 조합하여
그들만의 고유하고 은유적인 ‘성평등’ 이미지를 표현해 보았다



차별과 싸워 온 과거

청년을 연령 하나의 범주로 단일화 할 수 없는 현재

콘크리트 벽에 막혀있지만, 그 너머의 푸르른 풍경 속 그 안에는

여성이 어디든 존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다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출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김수인 <여자는 어디든 존재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이희은 <Body Funtion>

<https://pixabay.com/images/id-2071307/>

MADE

《청년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A. 대전시에 바라는 점

- 취약 계층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마련 (조수은, BIGWAVE)
- 대전시 여성 청소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장수현, BIGWAVE)
-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시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정책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 했으면 좋겠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지수, BIGWAVE)
- 청년의 목소리를 기다리지 말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에게 찾아가라. (D.C., CGSN)
- 청년에 대한 정책을 고안할 때, 청년의 다양성, 스펙트럼을 확장해서 정책을 계획했으면 좋 겠습니다.(LED, CGSN)
- 대전 청년들은 혜택을 받을 만한 정책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이들을 위한 일자리나 주거환경이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전의 대학생들을 인터뷰 해보니 대전에 남고 싶다는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대전 에 자신의 전공을 살릴 만한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전시가 청년과 여성이 떠나는 도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LongTimeH, CGSN)
- 이런 활동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은아, L())
- '청년'에서 '여성 청년'을 배제하지 않기,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유진, L())
-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또한 정기적으로 성 평등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임소연, L())
- 성평등을 지향하는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한 지원 확대. 예술인 기본소득 (한은성, 오토)
- 대전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예술 노동자들의 현실적 삶을 들여다보고 전폭적 지지와 지원 필 요. 예를 들면 달에 한번 활동비 명목 지원금 지원. (김단비, 오토)
- 사회에서 말하는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어린아이가 살기 편한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힘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따 뜻한 관심으로 도와주었으면 한다. (전아라, 오토)

《청년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B. 앞으로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에 바라는 점

- 앞으로도 꾸준히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비를 확대하거나, 보다 더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었으면 함. (조수은, BIGWAVE)
-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성평등에 관해 세부 주제를 정해서 성평등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참가해보고 싶다. (장수현, BIGWAVE)
- 주제를 미리 정해둔 뒤, 동아리별로 그 안에서 세분화하여 차별성을 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주제 선정이 조금 어려웠다. (최지수, BIGWAVE)
- 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C., CGSN)
-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LED, CGSN)
- 성평등이 보편적인 개념이 되는 그 날까지 지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활동가와 청년들에게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ongTimeH, CGSN)
- 홍보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아리별로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동아리원들끼리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가이드라인이 없어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임소연, L())
- 1~2회 정도의 성평등 기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동아리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멘토가 있었으면 한다. (이유진, L())
-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현은아, L())
- 활동비 지원금 확대 (한은성, 오토)
- 활동 지원금 확대 및 성평등이란 단어를 비롯해 적극적 페미니즘 단어 사용 (김단비, 오토)
- 지원해주고자 하는 성평등 동아리에 대한 관심과 시선 (전아라, 오토)

나가며

담당자의 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청년과 청년을 잇고, 성평등에 관한 주제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활동은 올해 세 번째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대전지역 고등학생과 함께 했었습니다.

각자 자체 계획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글을 쓰고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분들의 경험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작업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더불어 성평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고민, 의지, 열정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생한 현장감을 자료집에 모두 담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충분히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성실하게 활동한 참여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성평등을 마주하며 함께 보낸 ‘기억’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일상을 보내다가 이따금 힘에 부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대전지역
청년 성평등 동아리
활동 사례집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